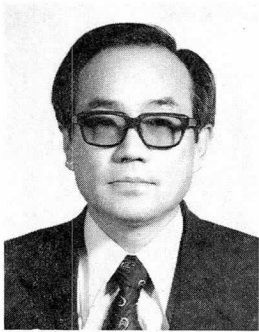


축적된 기술과 전문 인력의 활용 기대



박 태 유
(내무부 예방과장)

1. 머리말

지난해 10월 화재보험 공동 인수 체제가 국유 건물과 방위 산업체를 제외하고 전면 해제되었다.

이러한 풀제의 해제는 화재보험 시장에 자유 경쟁 원리를 불어 넣어 보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아울러 그동안 화재보험의 공동 인수 체제 운영을 위하여 발족 되었던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위상과 역할도 불가피하게 재정립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간의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활동을 살펴보고 앞으로 화보가 나갈 방향에 관해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화보협회의 설립 배경

지난 71년 1백63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와 이듬해 53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민회관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73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2482호 이하 화보법)”을 제정, 아파트·공공건물·공장 등 특수건물에 대해 화재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어, 화재보험을 둘러싼 보험사들의 과다 경쟁을 막기위해 정부는 화재보험을 풀(Pool)로 취급키로 하고 73년 5월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설립하여 화재보험 인수 업무와 안전점검 및 방재 교육을 담당하여 왔다.

설립 당시는 보험 가입 대상 지역을 서울·부산·대구에 국한하였으나 74년에는 인천·광주·대전·전주까지 확대 하였으며, 91년에는 울산·부천·수원·성남 지역까지 확대하여 업무의 영역을 넓혀 왔다.

이리역 폭발 사고 등 대형 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방재 활동의 근원적 대책 마련과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86년에는 방재시험연구소를 화보협회 부설 기관으로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화보협회의 활동과 평가

그동안 화재보험의 위탁 업무와 화재 예방 및 방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는 2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화보협회는 특히, 건축, 전기, 기계, 화공 등 각분야 별로 숙련된 전문 기술 인력과 최신 장비를 갖추고, 특수건물의 소방 및 방화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방재 시설의 성능과 유지관리 상태를 정상적으로 확보하는 등 긍정적인 면과 또한 그 부설 방재시험연구소에서는 방화 안전 관련 제품의 시험과 우수 제품의 추천, 인증 업무 및 방재 기술 정보 회원제를 통하여 방재 업무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립 이후 화보협회의 업무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수익성이 보장되는 보험 업무에 주로 역점을 두어온 반면, 방재 기술 분야를 소홀히 하여 보험과 방재, 두 분야의 업무 형평이 상실된 감이 없지 않았다. 또한 보험 시장의 변화나 급변하는 사회 여건에 대응해 나가는 화보협회 자체의 자구 노력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기술적 분야에 대해 발

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였다. 즉,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소방 시설 기준에 관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소방 시설의 규격 등 점검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술적·기능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나 운영면에서 하나하나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시켜 나갔어야 하나 이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별로 많은 것 같지 않다.

둘째는 소방 검사 제도에 대한 문제로서 그동안 화보협회에서는 안전점검 업무를 소방법상의 소방 검사로 갈음케 하거나 법률상의 소방 검사 대행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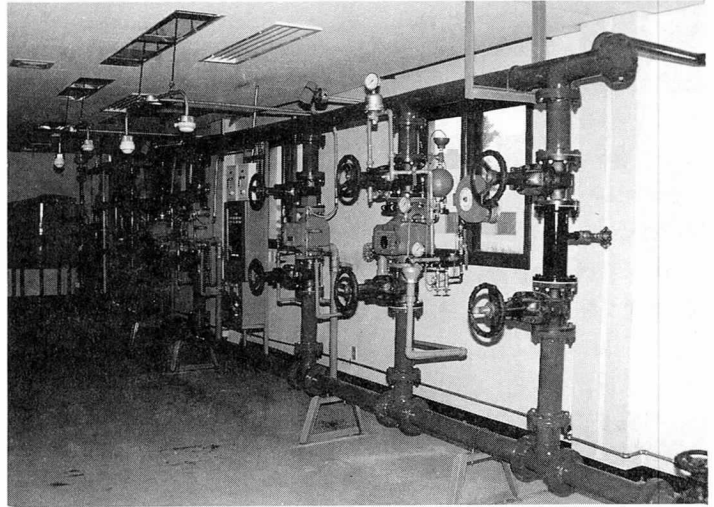
그러나 이는 화보협회의 설립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공공성이 강한 소방 검사 업무의 특성을 잘못 이해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셋째는 그동안 화재보험 풀제도가 자유 시장 원리에 위배된다는 업계의 여론과 보험 시장을 개방하라는 선진 외국의 압력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화보 풀제도의 해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화보협회 자체의 대응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4. 여건의 변화

화재 보험의 풀제도 해제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89년부터 3단계로 해제되어 왔으며, 현재 국·공유 및 방위 산업 물건에 대해서만 계속 풀제로 운영되고 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손해 보험사는 특수건물의 손해율이 낮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경쟁적으로 인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풀제 해체에 대비해 오래 전부터 나름대로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안전점검, 위험관리를 위한 방재 전문 조직을 각 보험사별로 설치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방재 전문 조직은 현재 화보의 주요 기능과 중복되는 것으로 풀제 해제로 가뜩이나 위축된 화보협회의 업무가 더욱 잠식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현행 화보법에 근거하여 각보험사가 수입 보험료중 10%씩 출연케 하여 화보협회의 운영 재원으로 확보되고 있는 예산이 앞으로 풀제가 완전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각 보험사에서 같은 수준의 운영 재원을 계속해서 출연할 수 있게 될는지 의문시 된다.

5. 발전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보협회를 둘러싼 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해 가고 있다. 따라서 화보협회는 안정된 재원에 의존하는 등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더 적극적

인 모습으로 업무를 개발하는 등 활로를 모색할 시점에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절실하다.

그동안 필자가 생각했던 몇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장기적인 문제로서 화보협회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화보협회는 법률 제2482호(일명 화보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무부 산하 단체로서 보험 업무와 방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험 풀제가 전면 해제되면 보험 기능은 약화되거나 없어지게 되어 순수한 방재 기능만 남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재 기능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위험 관리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화보의 점검 업무에 대한 보험사의 의존도가 약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화보협회가 방재 전문 기관으로 계속 존속한다 하더라도 일선 소방관서, 한국소방검정공사 등 기타 방재 관련 기관과의 기능과 역할의 광범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소방법,

화보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전문 방재 연구 기관으로의 발전이다. 화보는 설립 이후 보험 업무에만 주력하던 업무 패턴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방재 업무를 발전시킴으로써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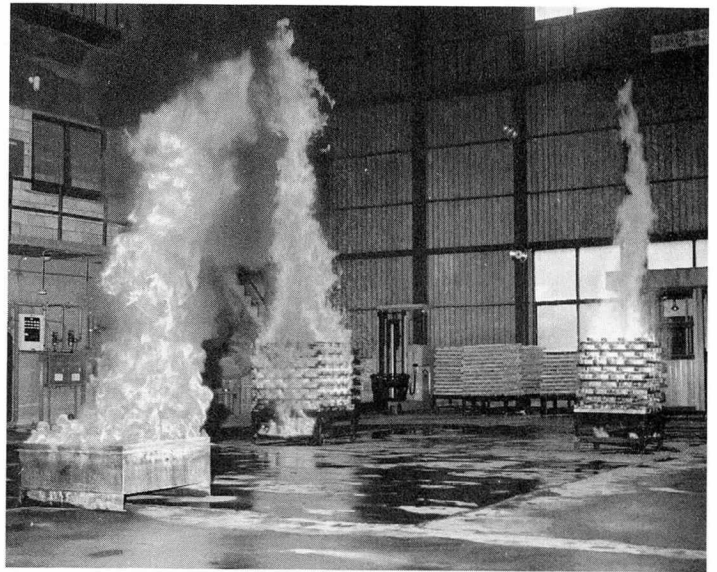
예를 들면, 현재의 보험 가입 대상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수준을 벗어나 연구·교육 기능을 보강하고 방재 기술 정보를 공급해주는 전문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산업 발전과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 모두가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을 회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단체도 많이 설립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방 분야만 하더라도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검정공사, 최근에는 한국위험물안전기술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유관 협회나 단체로는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체계적인 연구 기능이나 최신 정보 수집·분석 기능, 자체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교육 기능을 확보하는데는 여러가지 제약 요건과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광범위하게 방재 업무에 관련이 있는 화보협회가 각종 방재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나 최신 국내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각급 연구 단체, 대학교, 기업체 연구소와 개인에 제공함으로써



써 기술과 정보를 공유토록 하여 방재 기술 분야를 육성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방재시험연구소의 활성화이다.

1986년 4월에 개소된 방재시험연구소는 기초 시험실, 내화시험실 등 방재 시험 연구에 관한 주요 시설과 기자재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으나 시설과 인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여 국가·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방재시험연구소의 중요 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키 위하여 자체적인 연구는 물론 방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일정 기간 동안 연구 활동을 필요로 하는 대학 관계자 또는 기업체 등에서 중요 연구 기자재와 각종 기술 정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거나 계약 연구 프로그램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교육 기능이다. 현재는 방재 전문 교육

기관이 없는 실정임으로 방재시험연구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방재 관련 각종 단체 직원, 대기업체의 특수 기술 인력자, 손해 보험사 직원, 소방기구 제조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센터로 발전시키는 방법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 인력의 활용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방재 기술 연구, 안전점검, 국내의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통하여 상당한 기술 축적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기왕에 확보된 연구 기능을 활성화하고 안전점검 업무의 수준 향상과 방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선진 기술 정보의 제공 등에 주력하는 방재 전문 기관으로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